

경제 산업 산업일반

우방산업, '인공지능 수돗물 수질 측정 시스템' 도입

신성우 기자 입력 2023.06.02.11:08 수정 2023.06.02.11:08



[사진 제공=SM그룹]

SM그룹의 건설부문 계열사 우방산업이 어제(1일) ㈜엠에스텍과 업무협약을 맺고 'AI 스마트 수돗물 수질 측정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AI 스마트 수돗물 수질 측정 시스템은 입주민에게 공급되는 수돗물 수질 상태와 배수관, 저수조, 급수관의 이상탐지 및 오염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고 수질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지역 배수지 또는 환경부를 통해 제공되는 수질 정보를 확인해야 했지만, 해당 시스템을 적용하면 모바일을 통해 구간별로 실시간 수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수질 분석을 통해 이상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에게 카카오톡·SMS 알림을 보내는 긴급상황 알림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우방산업 측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하는 주택사업에 AI 기반 스마트 수돗물 수질 측정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NAVER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신성우 기자

chris@sbs.co.kr

5월 'K-조선' 수주, 中에 밀린 2위...'양보단 질'

LG에너지솔루션, 호주 음극재 업체와 '맞손'...인조흑연 공동...

많이 본 뉴스

'그랜저 잡아라'...50년만에 한국 온 일본車 가격은?

'토이스토리' 감독도 짐쌌다... 디즈니 콘텐츠도 지운다

이재용이 식당서 만난 '이 사람', 대만서 떠들썩

"하루 5시간, 월 170만원"... 서울시 꼴알바 뭐길래?

예금 들면 4%는 기본?...가장 높은 곳 어디?

경제 브리핑

케뱅저축은행, 5천만원 넣으면 195만원 원다

우윳값도?...모레부터 가격 협상 시작

증시 회복에 IPO시장도 반색...'조단위 대어' 줄줄이 출격